

[협회소식]

◆ 로지스올 서병륜 회장, KPCA 신임회장으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제 6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난 2월 23일 2012년 제16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이경호 회장(영림목재 대표이사) 후임으로 협회의 6대 회장으로 서병륜 LogisALL 회장이 선임됐다.

서병륜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협회가 파렛트,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사용자인 고객위주로 협회 운영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강조하고 회원사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서병륜 신임회장은 “앞으로 생산자와 고객이 합심하여 표준물류용기를 기반으로 하는 유닛로드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병륜 신임회장은 또 국제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예를 언급하면서 “수출입 화물을 적재한 파렛트가 국가간에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다. 이와 관련, 협회는 한·일간 리터너블 파렛트 무관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사)일본파렛트협회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회는 이경호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김정식 명예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 KPCA, 제16기 정기총회 개최

KPCA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



지난 2월 23일 2012년 KPCA, 제16기 정기총회를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경호 협회장은 금년 사업계획은 “유럽의 재정 위기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과 4% 미만의 낮은 경제 성장률 예상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긴축운영의 점진적 완화 및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효율을 극대화, 유닛로드시스템 보급 확산을 통한 산업물류 혁신, APSF의 한·일간 리터너블 파렛트 무관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참여로 한·중·일 간 막힘없는 물류 실현을 위한 운영 목표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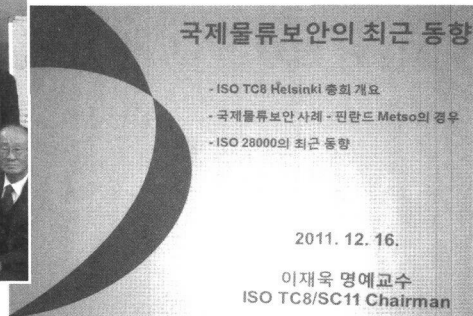
또한 “협회의 내실을 기하고,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ULS의 보급확산 APSF의 활동 강화, 회원사의 선진물류 BM 연수, 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자발적 협약의 성공적 의무를 달성 및 연장, 또는 EPR 품목으로의 전환준비 등을 통한 협회 회원사의 서비스 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경호 회장은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임기 3년간 적극적으로 협조 해준 모든 회원(사)와 정부기관, 협회 임직원, 씨니어 물류포럼의 자문위원,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3년간 회장으로써의 임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신입회장 및 이사 선출 등의 임원변경이 있었다. 그 변경사항 으로는 서병륜 로지스올 그룹 회장이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제6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경호(영림목재(주), 대표이사) 회장은 명예회장 겸 이사로, 김정식 명예회장은 고문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다.

또한 신입이사로 김인호(영림목재(주) 부사장), 박인술(한국파렛트풀(주) 영업총괄 사장)이 선출되었으며, 이두순(공간찬빌(주), 대표이사) 이사에서 감사로 직책변경, 기존의 홍성명(진성산업(주) 회장) 감사는 사임을 하였다.

◆ KPCA, '국제물류보안' 설명회 열어 씨니어물류포럼 자문위원 참석하여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지난 12월 16일 협회 내 회의실에서 KPCA 씨니어물류포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물류보안의 최근 동향' 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주제의 발표로는 씨니어물류포럼 자문위원인 이재욱 인하대 명예교수가 하였으며, 그 발표사례로는 △ISO TC8 Helsinki 총회 개최, △국제물류보안 사례(핀란드 Metso의 경우) △ISO 28000의 최근 동향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재욱 인하대 명예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씨니어물류포럼 자문위원들은 현재 국제물류보안의 취약함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토론을 가졌다.

앞으로도 KPCA의 씨니어물류포럼 자문위원들은 물류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펼칠 예정이다.